The Gospel of Mark
Sermon 53
Title: "The wicked vine-dressers"
Scripture: Mark 12:1-12
Date preached: September 10th 2023

Scripture: Mark 12:1-12

**1 Then He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and set a hedge
around *it,* dug *a place for* the wine vat and built a tower. And he leased it to vinedressers and
went into a far country. 2 Now at vintage-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vinedressers, that he
might receive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from the vinedressers. 3 And they took *him*
and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4 Again he sent them another servant, and
at him they threw stones, wounded *him* in the head, and sent *him* away shamefully treated.
5 And again he sent another, and him they killed; and many others, beating some and killing
some. 6 Therefore still having one son, his beloved, he also sent him to them last,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7 But those vinedressers said among themselves, 'This is the heir.
Come, let u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8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cast *him* out of the vineyard.**

**9 "Therefore what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destroy the
vinedresser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10 Have you not even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11 This was the LORD's doing,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12 And they sought to lay hands on Him, but feared the multitude, for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1 그러고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
즙틀을 놓을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2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3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4 주
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갖은 모욕을 하였다.

5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6 주인에게는 이제 보낼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7 소작인들은 '이 사
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며

8 그를 잡아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다.

9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10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11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
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1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what we looked at in our last study.

Last time we finished chapter number 11. We have entered the final momentous week in the earthly ministry of the Lord Jesus. Mark devotes close to 40% of his gospel to recording what happened in

this short, but world changing span of time. Let me very briefly recap what has happened so far this week.

On Sunday, the Lord Jesus rode a colt from the town of Bethany into the city of Jerusalem. It was an occasion for much celebration as the people joyfully welcomed their messiah. After arriving in the city Jesus went to the temple and then returned to Bethany.

On Monday, Jesus traveled back to Jerusalem. On the way we read about the cursing of the fig tree. Upon arrival at the temple the Lord Jesus was righteously angry that His Father's house was being misused. He cleansed the temple, driving out the animal sellers and money changers. He then again returned to Bethany.

On Tuesday, the Lord and His disciples again made the journey from Bethany to Jerusalem. On the way Peter points out the withered fig tree. This provides the Lord Jesus with an opportunity to give the disciples a lesson on the power of faith and prayer. When they arrive in the temple Jesus is approached by a delegation made up of the chief priests, scribes and elders. They have come to challenge Jesus' authority. They want to know by whose authority He cleansed the temple and drove out the business men. This was the topic of our sermon last time. Let me recap som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I made.

This group of men that approached Jesus in the temple represented the Sanhedrin. The Sanhedrin was the highest Jewish authority that existed in Israel in Jesus day. These men represented the power and authority in the land. Amongst other things they were responsible for preserving Judaism. If anyone appeared and claimed to speak for God then they had the right to judge and assess them. Of course as we have seen throughout Mark's gospel they were never fair or open-minded when it came to Jesus. They were always predetermined to reject Him and the claims He made.

So on this occasion they profess to be interested in where His supposed authority came from. Jesus makes a conditional promise with these men. If they answer His question, then He will reveal where His authority derives. Jesus' question to them regards the person and work of John the baptist. He asks them whether they believed John was a prophet sent by God, or whether John was just speaking as a man. This is an impossible question for the Jewish leaders to answer. Here's why. All the people believed that John came from God. It was impossible to dispute that there was something special and "divinely inspired" about him. Most importantly John had vouched for Jesus. He had said plainly that Jesus was the Messiah,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So if the Jewish leaders agreed that John spoke God's truth they would then be left trying to explain why they didn't accept what he said about Jesus.

To deny that John the baptist did not come from God is equally problematic. As I have just noted John stood out as being special and unique. He quite clearly was a prophet sent by God.
To deny he was a genuine prophet would show that these Jewish leaders were spiritually blind. It would call into question their ability to lead God's people. The people quite rightly would reject such men.

Therefore the leaders tell Jesus that they do not know the answer to His question. Of course, they really do, but the truth is unpalatable to them. Therefore because they have not upheld their end of the promise Jesus will not answer their question.

Today we will consider the parable that Jesus gives to this same group of men. Before we do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지난 주에 우리는 11 장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중요한 마지막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거의 40%를 이 짧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데 바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주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 그들의 메시아를 기□□ 환영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신 후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다가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대해 읽었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신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롭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동물 장수와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화요일에 주님과 제자들은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베드로는 마른 무화과나무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상인들을 쫓아내셨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온 이 무리는 산헤드린을 상징했습니다. □□□□□□ □□□ □□□□□ □□□□ □□□□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권력과 권세를 대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유대교를 보존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결코 공평하거나 개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분과 그분의 주장을 거부하기로 미리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공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조건부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의 질문에 대답하면 그분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요한이 단지 보통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무언가가 있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왜 그가 예수에 대해 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설명해야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하고 독특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진정한 선지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들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 □□□□□□□ □□□ □□□□ .

그러므로 유대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진실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바로 이 무리들에게 주시는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Introduction

Today we begin chapter number 12. As I have pointed out on several occasions the chapter and verse divisions are a relatively modern addition to our bibles. So what we are really reading here is a continuation of the conversation Jesus is having with the representatives from the Sanhedrin. The Lord Jesus will present them with a parable that demonstrates exactly where their sinful wicked

hearts will lead them. They had permitted, or at least not objected to the killing of John the baptist. But soon, and much worse they would call for the crucifixion of God's own son, the Messiah sent to save them!

Let me say a few brief things here about parables. The word parable literally means something "cast alongside" something else. A parable then was a story or illustration that was cast or laid down alongside a truth in order to better or more clearly illustrate that truth. A common description of a parable is that it is an earthly story with a heavenly meaning. They were popular and effective teaching tools because they employed everyday things and situations. Simply put they were very relatable. Everyone in Jesus day was familiar to some degree with vine-yards and tenant farmers.

Parables were also useful as a teaching tool because a true, deeper kind of understanding was frequently required. Jesus' parables usually concealed a deeper spiritual truth. Those who were properly attuned or enlightened (those on the inside) had this life transforming truth revealed to them. But to those who remained hardened and unreceptive (those on the outside) the parables remained simply as stories or illustrations.

Let me dispel another myth some have regarding parables. The myth is that the Lord Jesus invented this form of story-telling. This is not the case. It is certainly true that Jesus very effectively used parables in his ministry. However He did not create parables as a new literary genre. It was a genre that was very familiar throughout the Mediterranean world. In Greece and Rome, parables were often employed by rhetoricians, politicians and philosophers.

When it comes to parables in the gospels Mark records the fewest parables among the synoptic writers. John of course does not include any parables in his account. The parable that we are going to consider today is recorded in both Luke (20:9-19) and Matthew's (21:33-46) gospels. Let us now turn and look at the parable.

오늘 마가복음 12 장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성경의 장과 절 구분은 비교적 현대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11 장에서 예수님이 산헤드린의 대표들과 나누는 대화의 연속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된 악한 마음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지 정확히 보여주는 비유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살해를 허락했거나 적어도 그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 parable 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다른 것을 " 옆에 던진다" 는 의미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 진리와 함께 나란히 배치된 이야기 또는 삽화였습니다.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한 지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사물과 상황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도구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매우 친숙한 소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포도원과 소작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되고 심오한 이해가 요구되는 가르침을 줄 때 비유는 교육 도구로 유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개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깨달은 사람들(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퍅하고 무감각한 자들(외부에 있는 자들)에게 비유는 단순히 이야기나 비유로 남아 있습니다.

비유에 관한 다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은 주 예수께서 이런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처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에서 비유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유를 새로운 문학 장르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매우 친숙한 문학적 형식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수사학자, 정치가, 철학자들이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의 비유에 관해서는 마가가 공관 기자 중에서 비유를 가장 적게 기록합니다. 물론 요한은 그의 기록에 어떤 비

유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는 누가복음(20:9-19)과 마태복음(21:33-46)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봅시다.

1 Then He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and set a hedge around *it,* dug *a place for* the wine vat and built a tower. And he leased it to vinedressers and went into a far country.

The Lord Jesus launches straight into the parable. It concerns a certain, presumably "wealthy" man. This man wants to establish his own vineyard. Israel, as you probably know is a grape growing country. It possesses the perfect climate and soil to grow grapes and produce fine wines. Galilee had some of the richest farmland in the Roman world. So it is a normal, and we might say natural thing that a man in Jesus day would want to create a vineyard. However to do such a thing takes considerable time and financial investment.

On average, it took up to five years for the vines to really be established and begin to produce regular and good fruit.

But this man as we can see does not hold back. He equips his vineyard with all it will need to succeed and flourish. Firstly he set a hedge around the property. This served to mark the boundaries of the site and more importantly provide protection. Robbers or wild animals could not easily enter and steal the grapes. Wild boars or pigs were a particular problem.

Secondly he dug a wine vat. This refers to a place where the crushed grapes (the wine) would be captured and then possibly stored. In practical terms this meant that the grapes could be grown and processed on the same site.

Thirdly he built a tower. This may have served several purposes. It may be where the wine was securely stored. It might also serve as a place for the vineyard workers to stay. During the harvest season there was much work to be done. Far better, and more convenient to have the workers stay at the vineyard. Finally the tower might serve as a lookout or watch tower. The vineyard may have covered a large area. From an elevated vantage point you could easily spot thieves or wild animals trying to enter. So to sum it all up, this vineyard is well equipped and could be expected to flourish. The owner clearly cares about it and had done all in his power to ensure it will be a success,

The Lord then tells us that the owner decided to lease it out to some tenant farmers (the vinedressers). This was because he had to travel to a far off country. This was a very common thing for land owners to do in the ancient world. It's still commonly done today. The owner of the land agrees to let out their estate to tenant farmers. They farm the land, or care for the vines on behalf of the owner and pay an annual rent. This annual payment could be either in money, or as in this case in some of the produce of the farm or vineyard. Commonly the arrangement was for half the crops, or half the value of the crops. With all this arranged the owner leaves and is gone for a long time (Luke 20:9).

So the parable story is simple enough to understand. But as I pointed out before Jesus' parables always convey a deeper spiritual meaning. So let us turn now and consider the spiritual meaning. The first thing to note is that Jesus words here are very similar to a well known portion of the Old Testament. I am referring to Isaiah chapter 5 verses 1-7. This was a passage of scripture that would have been very familiar with Jesus' hearers. This helps to explain how on this occasion there was no ambiguity over Jesus' words. His hearers understood His point clearly.

1 그러고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놓을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주 예수님은 곧바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부자"라고 추측되는 어떤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포도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포도 재배 국가입니다. 포도를 재배하고 고급 와인을 생산하기에

완벽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포도나무가 자리를 잡고 정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데 최대 5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도원이 성공하고 풍성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설비를 준비합니다. 먼저 그는 건물 주변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경계를 표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도나 야생동물이 쉽게 들어가 포도를 훔칠 수 없을 것입니다. 멧돼지가 특히 문제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포도주를 담을 통을 팠습니다. 이것은 으깬 포도(포도주)를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이것은 포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배되고 가공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탑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안전하게 보관되었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 일꾼들이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추수철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탑은 감시탑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넓은 지역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높은 지점에서 도둑이나 야생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포도원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번성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애정을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주인이 일부 소작인(포도 재배자)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나라로 여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토지 소유자가 임대하는 일은 매우 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소작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기로 동의합니다. 임대인들은 땅을 경작하고 소유자를 대신하여 포도나무를 돌보고 해마다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 연간 지불액은 돈으로 지불하거나 오늘 본문처럼 농장이나 포도원의 일부 생산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절반, 또는 농작물의 가치의 절반을 지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인은 여행을 떠나고 오랫동안 떠나 있습니다(눅 20:9).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이해하기에 충분히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잘 알려진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 장 1-7 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의 청중은 그의 요점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Isaiah paints a very vivid picture of how God prepared and nurtured a particular people. This is illustrated by likening God's work with Israel to a man preparing a vineyard.

God you see in this parable is the certain man (the owner) who desires to have a vineyard. The vineyard represents the nation of Israel. The owner (God) did all that was necessary for the vineyard to be successful. He provided, protected and poured out His love upon it. In practical terms we can look to His divine protection of His people, and in providing them revelation through prophets. The vinedressers in the parable represent the spiritual rulers of Israel. They were tasked with leading the people well and enforcing God's standards and rules. When all these things came together one might expect a successful outcome.

So what would classify as success? What did God expect for His efforts? Well remember back to the withered fig tree. God protected and cared for Israel with the expectation of future fruit. No vineyard owner would invest time and money and not expect something at the end. So you see this

is really a story explaining the national sin of Israel. The nation had rejected and rebelled against God which resulted in a lack of fruit. Let us read on.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특정한 백성을 준비하고 양육하셨는지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일을 포도원을 준비하는 사람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어떤 사람(주인)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주인(하나님)은 포도원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실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신성한 보호를 제공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계시를 전달하셨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포도 재배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통치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을 집행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수행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노력의 결과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시들어버렸던 무화과나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래에 맺힐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도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죄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 Now at vintage-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vinedressers, that he might receive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from the vinedressers. 3 And they took *him* and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It's now harvest or vintage time. We are perhaps to assume that som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s passed.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it often took several years for the vines to settle and produce good fruit. Here though the vinedressers have done a good job and there is a nice crop of grapes ready to pick. The owner wants the share that is rightfully his. So he sends off one of his servants to collect some fruit.

This first servant is shamefully treated. Instead of being handled respectfully as coming from the land owner these wicked vinedressers took the man and beat him. The word used here for "beat" is the Greek word *dero.*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an mean to thrash, flay, smite or punch.

There is actually an important point I need to make here. It helps explain the wicked actions of the tenants, You see in order to retain his legal rights to the property, the owner had to receive some produce from the tenants each year. Even if it was just a few poor quality grapes it would be enough to secure the legal right he had to the land. So if the tenants gave the owner nothing perhaps they hoped that over time they could claim the vineyard for themselves. This of course in no way excuses their wicked act. The point that Jesus is making is as follows. The vinedressers are refusing to recognise the authority of the owner or to pay him what was his due. They acted as if they were the owners instead of just the leaseholders.

I am sure you have worked out for yourselves the deeper spiritual truth being presented here. The **servant** represents one of the prophets that God sent to His people. These prophets were typically rejected, persecuted, beaten, abused and even in some cases murdered by Israel's leaders. Let me give you one example of what happened to the prophet Jeremiah.

Now Pashhur the son of Immer, the priest who *was* also chief governor in the house of the LORD, heard that Jeremiah prophesied these things. 2 Then Pashhur struck Jeremiah the prophet, and put him in the stocks that *were* in the high gate of Benjamin, which *was* by the house of the LORD. (Jeremiah 20:1-2)

So the important take-away here is the wicked treatment Israel's leaders had given the servants (the prophets) whom God had sent to them. Of course to be beaten and sent away is bad enough, but what happens to the next servants is even worse. Let's read on.

2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3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수확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포도나무가 자리를 잡고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종종 몇 년이 걸렸습니다. 포도원 재배자들이 일을 잘 해냈고 수확할 준비가 된 좋은 포도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정당하게 그의 몫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몫을 받기 위해 종 중에서 한 명을 보냅니다.

이 첫 번째 종은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습니다. 이 악한 포도 재배자들은 땅 주인을 대표해서 온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잡아 때렸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때리다beat"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dero* 입니다. 문맥에 따라 '채찍질하다, 매질하다, 마구 때리다' 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작인의 사악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유지하려면 소유자는 매년 소작인으로부터 생산물의 일부를 받아야 했습니다. 품질이 나쁜 포도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땅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만일 소작인이 주인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바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악행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포도 재배자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작인이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내포된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이미 파악했을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 중 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거부당했고, 박해, 구타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이자 여호와의 성전 총독인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일을 예언함을 듣고 2 바스훌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쳐서 주님의 집 옆에 있는 베냐민의 높은 문에 있는 차꼬에 그를 채웠습니다. (예레미야 20:1-2)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종들(선지자들)에게 행하는 악한 대우입니다. 물론 두들겨 패고 쫓아내는 것도 나쁘지만, 다음 종들에게 하는 행동은 훨씬 더 악합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4 Again he sent them another servant, and at him they threw stones, wounded *him* in the head, and sent *him* away shamefully treated. 5 And again he sent another, and him they killed; and many others, beating some and killing some.

There is some speculation at this point as to what became of the first servant. Perhaps embarrassed about what had happened he ran away and didn't return to the master. This might help explain why the owner sent another servant without an armed escort. This second servant fares no better.

When he arrives at the vineyard the tenants stone him. They literally throw rocks at the guys head!

Israel is a very rocky place and before a vineyard can be planted the rocks and stones need to be dug up and moved. This meant that there were an ample supply of rocks to throw at this second servant.

The owner however is persistent. Why we might wonder would he continue to send servants. Isn't this rather bizarre behaviour? Well remember what I told you before about his legal rights to the land. He had to get some produce or else he'd be forced to give up his claim to the land.

Please note the escalation of the violence carried out on the owner's servants. We go from a beating,

to a stoning and finally to death. The next servant you see is murdered by the wicked tenants. This of course was the fate of a number of Old Testament prophets. In Hebrews 11 we read the following passage concerning many of those God sent.

36 Still others had trial of mockings and scourgings, yes, and of chains and imprisonment. 37 They were stoned, they were sawn in two, were tempted, were slain with the sword. They wandered about in sheepskins and goatskins, being destitute, afflicted, tormented. (Hebrew 11:36-37)

And still the owner keeps on sending servants. Some of whom were beaten, and others of whom were killed. In this of course we get a picture of God's enduring patience and perseverance. Despite the shameful ways His prophets were treated He continued to send more. This is because He loves His people and wants to reveal to them how they can live better, happier and more fulfilling lives.

We can probably imagine those first hearers of this parable as they became more and more incensed by the behaviour of these tenants. Surely this horror had to come to an end. Surely the rightful landowner would assert his authority and bring these men to justice. But the story has one final shocking twist. Let's read on.

4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갖은 모욕을 하였다. 5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어난 일이 부끄러웠는지 그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무장한 경비원 없이 다른 하인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은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포도원에 도착하자 소작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 사람 머리에 돌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바위가 많은 곳이며 포도원을 심기 전에 바위와 돌을 파고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이 두 번째 종에게 던질 돌이 충분히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끈기 있습니다. 왜 그는 종을 계속해서 보냈을까요? 이것은 다소 이해가 안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토지에 대한 그의 법적 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약간의 수확물을 얻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하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매질에서 시작하여, 돌을 던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내진 종은 사악한 소작인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것은 물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 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사람들에 관한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37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으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다. (히브리서 11:36-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구타를 당했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선지자들이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처음 듣고있던 사람들이 소작인들의 행동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공포는 끝나야만 했습니다. 정당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이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6 Therefore still having one son, his beloved, he also sent him to them last,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The owner has sent all the slaves he had. They have been beaten, abused and killed. Still this situation has not been resolved. Still he has not been given what he is owed. He decides then to send his precious, beloved son. They had shown no respect for the servants, but surely they would respect his son. Now we have seen how these men have previously behaved. They are thoroughly evil and wicked.

So imagine again those first hearers. How did you suppose they feel when Jesus said these words? Oh no! He's not going to be so foolish as to send his son, his heir, his hope for the future. Probably they expected that the owner would gather a small army and go and arrest these men. The Lord Jesus loved to throw in these shocking, inexplicable or unexpected elements to His stories

As we have already seen the owner of the vineyard is God. Therefore His precious beloved Son is none other than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God sent Him into this wicked and evil world knowing exactly how He would be treated.

How will these wicked vinedressers react to the owners son? Let's find out.

6 주인에게는 이제 보낼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주인은 자기에게 있던 종들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들은 구타당하고,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가 빚진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소작인들이 종들은 존경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의 아들을 존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 □□□ □□□ □□□ □□□□□ □□□□□. 그들은 철저하게 악하고 사악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니야! 그 주인은 자신의 상속자이자 미래의 희망인 아들을 보낼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거야!! 아마도 그들은 주인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체포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에 이러한 충격적이고 설명하기 힘들거나 예상치 못한 요소를 집어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정확히 아시고 그분을 이 사악하고 악한 세 □ □ □□□□□□.

이 사악한 포도 재배자들은 주인의 아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 □□□□□□.

7 But those vinedressers said among themselves, 'This is the heir. Come, let u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8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cast *him* out of the vineyard.

The vinedressers reaction is entirely consistent with all of their behaviour up to this point. These men are wicked and greedy. They want the authority and power that is not theirs.

So they conspire together. Perhaps they thought that the owner was too old to travel, or even that he had died. Or maybe they reasoned that the owner would finally give up in light of the persistent

trouble they had caused him. They knew that under Jewish law a piece of land or property that remained unclaimed by an heir would be declared ownerless. So at this point they could claim the vineyard for themselves. The Lord Jesus does not explain their mind-set. But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evil seldom makes rational sense

So when they see the son they take him by force, kill him and throw him out of the vineyard. Don't overlook this last detail. The way that we care for and treat the dead says a lot about our culture. Human corpses should be handled sensitively and with respect. To just throw the body out into the fields to rot and be scavenged by wild animals shows a real callous disregard for that which God has made. The Jews hearing Jesus' words would have been suitably shocked by this.

Of course as we read these words we remember how the Lord Jesus was treated. He was taken, beaten and abused and then killed upon a cross. Let us find out what happens next.

7 소작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며
8 그를 잡아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다.

소작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악하고 탐욕스럽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권세와 권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공모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여행하기에 너무 늙었거나 심지어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주인이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법에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토지나 재산은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들은 포도원을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어떤 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은 결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들을 강제로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이 마지막 세부 사항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돌보고 대하는 방식은 그 곳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시체는 세심하고 정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시신을 들판에 내던져 썩고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참으로 냉혹한 무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붙잡혀 구타당하고 학대를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9 "Therefore what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destroy the vinedresser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10 Have you not even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11 This was the LORD's doing,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 Lord Jesus now turns to His hearers. It's time to directly apply the parable to them. He asks them to consider how the owner of the vineyard will react. Quite clearly He will come in force to punish those who have killed and callously discarded his son. The vinedressers in rejecting the son were also rejecting the owner. They would not get the vineyard as they had perhaps hoped. It would be taken from them with force and given to someone else.

We know the fate of Jerusalem, Israel and the temple. In 70 AD the Romans destroyed the temple.

The Jewish religious system based around temple worship ended. Matthew in his recounting of this incident writes,

"Therefore I say to you,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from you and given to a nation bearing the fruits of it. (Matt 21:43)

Israel's leaders were replaced by the leaders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Some of these leaders were Jews, but many more were Gentiles.

But before His hearers could answer Lord Jesus quotes from what they all knew to be a Messianic prophecy. The last time we heard this of course was during the triumphal entry. On that occasion the crowds also chanted from Psalm 118. Psalm 118 is a thanksgiving hymn that celebrates Israel's victory over their enemies. David is presented in the psalm as the cornerstone rejected by the establishment.

9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
냐? 10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11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주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있는 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비유를 그들에게 직접 적용할 때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버린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무장한 채로 올 것입니다. 아들을 거부한 포도 재배자들은 주인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빼앗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성전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주후 70 년에 로마인들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제도는 끝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이 받게 되리라. (마 □ □□ 21:43)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 중 일부는 유대인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청중들이 대답하기 전에 주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 때 군중들도 시편 118 편을 불렀습니다. 시편 118 편은 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축하하는 감사 찬송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제도에 의해 버림받은 모퉁잇돌로 제시됩니다.

Jesus is often likened to a stone or a rock in the Bible. He is the rock of provision that followed Israel in the desert (1 Corinthians 10:4). He is the stone of stumbling (1 Peter 2:8). He is the stone cut without hands that crushes the kingdoms of this world (Daniel 2:45). Here we are to see the Lord Jesus as the foundation stone at the corner of a building. Jesus is the "cornerstone" of God's new temple, the church.

So in saying these words Jesus is passing a double verdict on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ey had not only rejected the Son, but they had also rejected the stone. There could be only one consequence for this. God would judge them. Let us see how today's passage concludes.

예수님은 종종 성경에서 돌이나 바위에 비유됩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면서 공급해주셨던 반석이

십니다(고전 10:4). 그는 거치는 돌입니다(벧전 2:8).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깍아 낸 돌이고 세상 나라를 산산조각내실 것입니다(단 2:45). 여기서 우리는 건물 모퉁이의 기초석으로서 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성전인 교회의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중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아들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돌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12 And they sought to lay hands on Him, but feared the multitude, for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Sometimes Jesus' parables left people confused or bemused. Not on this occasion. The Jewish leaders know that it is targetted directly at them. They realize that they are the evil tenant farmers of the parable and that Jesus was unmasking them before the people. How frustrating and embarrassing for these proud men. How they long to take hold of Jesus, and once and for all shut Him up. But the common people are behind Him. They support what He says. To arrest Him would potentially stir up trouble. A riot might ensue. This is something they are eager to avoid. So they leave Him and go away to scheme quietly together.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how they try to entrap Him again into saying something controversial.

1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다.

때때로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이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그를 단번에 가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분을 체포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떠나 조용히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음 주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논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하려고 다시 술책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의 성경 구절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the foolishness of sin

When we consider the conduct of the tenant farmers in the story their behaviour may strike us as being ridiculous. Fancy thinking they could continue to get away with beating or murdering people. Especially people connected to a powerful land owner. Surely they realised that eventually they would be caught and harshly punished. That however is logical thinking.

When it comes to sin things are never logical. People seem to think that just like these tenant farmers they can go on getting away with lawlessness forever. Many seem to think that there will be little or no consequences for sin. Many want to believe that God is so "loving" that He will just overlook our "little faults," "lapses" and "indiscretions." This I am afraid is the foolishness of sin.

Sin always comes with consequences. These consequences can range from relatively small to life changing, or even life ending impacts. Firstly sin damages our fellowship with God. We cannot be close to Him when we live and wallow in our sins. Secondly sin damages us. Thirdly sin destroys 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Fourthly and most severely sin if left unchecked results in death.

So let's not be foolish when it comes to sin. May we never forget that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died upon the cross to free us from the bondage of sin and death. Let's be serious about it, let us identify it, confess it to God and repent or turn from it.

1 죄의 어리석음

이야기에 나오는 소작농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어처구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 □□□ □ □□고도 책임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요 . 특히 막강한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결국 붙잡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 사고입니다.

죄는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결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작은 결점", "실패", "무분별함" 을 그냥 지나치실 것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이것은 바로 죄의 어리석음입니다. 죄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작게는 삶을 바꾸거나 심각하게는 삶을 끝내버리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가운데 뒹굴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둘째, 죄는 우리를 손상시킵니다. 세 번째로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죄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죄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식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2 All leaders will answer to God

The Bible is clear that when leaders fail, they will answer to God. This has been true throughout all of biblical history. Many of them Abraham, Moses, David and Peter responded to God. They repented, and were returned to leadership. Many others, however, ended their lives in failure. Korah led a rebellion and died for it (Num. 16); Samson committed suicide (Judg. 16) and Saul ended his reign in death and failure (1 Sam. 31). The Jewish leaders of Jesus's day had become "false shepherds" whom God had rejected.
They would soon lose their positions of power and face God's judgement.

Jesus tells us that a leader who causes God's "little ones" to "fall away" will suffer severe judgement (Mark 9:42). As I have told you before "little ones" refers to any believer in the Lord Jesus Christ. Sadly we see apostate leaders in churches all around the world today. Men and sadly women too who are leading their congregations away from, not to God. Let us support and encourage our leaders. They require our constant and diligent prayer. Satan loves nothing more than to corrupt a leader and bring his ministry crashing down. Let us also remember our own roles as leaders in the home, church and workplace. We all have been given leadership duties by God. Let us stay strong remembering that God is watching, and we will have to account for our actions one day.

2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리더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 사

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가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지도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실패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라는 반역을 주도했고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민 16 장). □ □□ □□ □□(□ 16 장) □ □□ □□ □□□ □□□ □□□ □□□□□(□ □31 장). 예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은 하느님께서 배척하신 "거짓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권력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하는" 지도자는 중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9:42). 제가 전에 말했듯이 "어린 아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배교한 지도자들을 봅니다. 남성과 슬프게도 여성도 회중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 □ □□□□□ □ □□□ □ □□ □□□ □□□□□ □□ □□ □□□□□또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지도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역할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굳세게 버티고 언젠가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Jesus is the chief cornerstone

A building typically has four corners, and buildings back in Jesus day were usually built with stones. The chief cornerstone was the first stone laid down on the ground at one corner of the building. The building was then constructed by adding stones next to and on top of the chief cornerstone.

If the chief cornerstone was not laid down evenly, the whole building might end up being slightly rotated on its own axis. Simply put it would not be straight and true.

As we read today in verse ten Jesus is the chief cornerstone. This means that He is the foundation not only of the church but for our lives. So just like with a building we must build upon Him. In order to do this properly we need to make sure that what we believe about Jesus is correct. Just like with our building analogy if our cornerstone of belief is crooked or misplaced potential disaster awaits. If we are building our faith upon something that is false or not true then we risk potential collapse. Let me give you an example. Some think that God is in favour of love being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human relationships. Or as you might hear it expressed, if people love each other how could God be against it. Where does such thinking lead? It leads to us building upon a belief that "anything goes" providing love lies behind it. Homosexual union, polygamy might all begin from a place of love. We know that these unions do not please God, and we are not to encourage or build a belief thinking they are.

So in order to build our Christian lives in ways that are pleasing and honouring to God we must build upon Christ. To do this means having Him always in mind. It means seeking to obey what the scriptures tell us. Not what we may want to believe. So let us be always looking to Christ. May He, our only Lord and saviour be our focus, today and always.

3 예수님이 모퉁이 돌 (초석) 이십니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네 모퉁이가 있고, 예수님 시대의 건물은 보통 돌로 지어졌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한쪽 모퉁이 땅에 놓은 첫 번째 돌입니다. 그런 다음 모퉁이 돌 옆과 위에 돌을 더하여 건물을 세웠습니다.

모퉁잇돌이 바르게 놓이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자칫 축을 중심으로 조금씩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반듯하지 않고 삐뚤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 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건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

해 믿는 것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비유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초석이 비뚤어지거나 잘못 놓이면 잠재적인 재앙이 기다립니다. 거짓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잠재적인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반대하실 수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그것은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동성애 결합, 일부다처제는 모두 사랑이란 이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도록 격려하거나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경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늘 그리고 항상 우리의 초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